

인천 평화의 모후 관구 중창단 엔로디(NLorDy)를 소개합니다.



음악으로 하느님을 찬양하는 일은 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하고 감동을 선사합니다. 무엇보다 함께하는 찬양은 더 그러합니다.

인천 평화의모후관구에서는 함께 모여 하느님을 찬미하기원하는 수녀들이 모여 찬양팀을 만들었습니다. 중창단 이름인 엔로디(NLorDy)는 '노틀담 수녀들이 부르는 주님의 멜로디'라는 뜻입니다. 이 중창단에 함께하는 수녀님들은 각자의 사도직 안에서도 시간을 내어 직접 노래를 만들고 연주하고 부르며 이를 통해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사도직을 하고있기에 함께 모여 노래연습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공지와 의견 교환은 SNS 를 통하여 이루어지고있고, 가끔 직접 모여 연습할 기회가 있기도 하지만 주로는 줌을 통해 연습을 하곤 합니다.

오늘 전세계 노틀담 가족들과 나눌 우리의 노래는 이 마리 베라 수녀가 작사, 작곡한 귀한 아기 라는 성탄 곡으로 중창단 수녀들이 각자의 파트를 부르고 녹음하여 하나의 영상으로 제작한 첫번째 작품입니다. 영상에 사용된 이미지 역시 모두 우리 관구의 수녀님들의 작품입니다.

평화가 간절히 필요한 이 세상에 귀한 아기로 오시는 아기예수님의 오심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